

사랑의 행진, 땅끝까지... -2007년 여름 해외 단기 선교 일정 확정



2006 여름 단기 선교지였던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선교팀이 준비한 모임에 참석하여 즐거워 하고 있다.

주님의교회 선교사역본부에서는 2007년 여름해외단기 선교일정을 확정했다. “사랑의 행진 땅끝까지”라는 주제로 총 11개 팀, 150여명의 중등부, 청년부, 장년부를 주축으로 진행될 이번 단기선교는 선교사역본부의 장일형 안수집사(단기선교팀장)를 중심으로 홍보, 준비, 사역 및 결과보고가 통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등부와 청년부가 주축이 되는 7개팀은 Vision Trip의 개념으로 각 선교지를 순회하며 팀별 사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선교 지역에 대한 특성과 선교에 대한 견문을 넓힐 예정이다. 장년부는 가족 중심으로 팀을 운영하는 곳과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 봉사, 의료, 문화선교 및 중보기도와 땅밋기 사역, 우물과기사역, 교회성경학교사역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단기선교 방향의 특징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중국, 이슬람권역 및 유럽지역까지 단기선교의 지역 및 대상이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팀별로 의료, 문화, 노력봉사, 전도 등 사역범위가 다양해졌다. 마지막으로 홍보 및 준비부터 진행과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하되 각 팀별 자율성과 특성을 고려해 유기적으로 연합 운영하게 된다.

개괄적인 사역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부와 중등부는 교회학교 자체적으로 인원을 모집하며 준비와 진행 전체를 선교사역본부와 연계하여 진행하게 된다. 아동부는 캄보디아의 이성민선교사의 사역을 살펴봄에 선교적 도전과 아동들이 할 수 있는 선교지의 필요를 채워줄 예정이다. 중등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람지역의 선교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청년부는 일반팀과 직장팀으로 나누어 운영하게 된다. 지역으로는 태국-캄보디아-베트남, 중국 소수민족이 머무는 곳, 유럽 등지이다.

장년부에서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모집 하는데, 장년

을 중심으로 한 가족과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을 포함하여 혼합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혼합팀으로 구성된 캄보디아팀은 일반 전도사역 및 우물과기사를 통해 지역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것이며, 이슬람권 사역으로는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위그루족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 위그루족을 향한 사역팀은 가족단위의 팀원도 모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한족 및 가정교회의 현장을 살펴

“ 선교는 사명을 받은 선교사들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다. ”

보며 그들을 지원하는 단기선교팀도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6월 17일까지 단기선교에 동참할 사람들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은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이나 1층로비 지원함에 넣으면 된다.

선교사역본부에서는 이들 11개팀을 위해 6월23일, 30일, 7월7일, 3회에 걸쳐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한 단기선교 준비교육시간을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비행기 좌석관계로 선착순 접수 마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각 지역별 팀장이나(3면 하단 일정표 참조) 담당교역자 및 장일형집사(019-240-6815)에게 하면 된다.

선교는 사명을 받은 선교사들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마음에 새겨 짧은 기간이나마 선교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직접 행하던지,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로, 또한 물질과 시간으로, 각자에게 주신달란트대로 간접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다. 이번 단기선교가 우리 모두에게 복음에 빛진 자로서 각자의 몫을 감당하여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정희성 목사

나의신앙이야기 _ 조정에

2면

캠퍼스에서 온 편지

3면

로 뎀 나무



면류관

똑같이 생긴 수많은 사람들이
엷히고 설킨 채 혼돈과 고통 속
에 끝없이 싸운다.
함께 있어도 서로 짓밟아야 하
기에 외롭고,

꿈을 꾸어도 모두 같은 꿈을 꾸기에 삶의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이유도 없고 결과도 없이 돌고 도는 흐름에 내 맡겨진 채 휩쓸려가는 슬픈 사람들.
이들이 엮어 이룬 면류관.

내가 본 삶의 모습은 다름 아닌 이 면류관의 모습이었다.

예수님께서 몸소 쓰시고 뜨거운 피로써 흠뻑 적시었던 바로 그 면류관인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생의 끝에 존재하는 것이 슬픔이 아닌 기쁨과 희망이길 바라는 나의 믿음이자, 수많은 허상 속에 진실을 보고자하는 나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존재하는 질은 그림자 곳곳으로 진실의 빛은 잔잔히 발하여나갈 것이다.

오수영 작가

※현관 오른쪽 계단에 연필과 펜으로 그린 대형 벽화가 걸려있다. 작품 제목은 면류관이다.

위의 글은 작품에 대한 작가의 글이다.



“나눔의 물품
(도서류)모으기”

군장병의 정서함양과 선교활동을 위한 도서류 모으기를 실시합니다.

일시: 6월 3일, 10일

장소: 1층 로비 나눔의 물품 접수처

주관: 군부대 교회 사역팀 복지선교팀

문의: 권승환 011.217.8386



예배의 현장 (영어예배 5월 27일)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외국인들은 정겹던 가족과 고향을 떠나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놓여져 그 사회 속에 섞이지 못하고 이방인이라는 것을 느낄 때 극심한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며 주저앉게 된다. 사람들과 아무리 관계를 갖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다고 하지만 그들을 치유하고 감싸 안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우리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다. 그곳은 낮 1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어우러진 영어 예배이다.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지만 타국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곳이기엔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

지난주 예배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다. 예배에 참석한 회중은 성령의 임재를 가슴으로 느끼며 하나님께 경배 했다. 찬양은 노래가 있는 기도로 외국인과 한국인이 하나됨을 더욱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경험을 했다.

대표기도와 말씀봉독 후 몇 주 전부터

시작된 히브리서 강해가 이어졌다. 이번 주는 9장의 말씀으로 나현수 전도사(Pastor Mike Ra)는 "완전한 성소"(A Better Sanctuary)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됨을 전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가슴속에 깊이 새긴 회중들은 소그룹 모임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함께 이야기 하며 기도했다. 소그룹 모임은 '두 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다. 모임 가운데 한 자매가 너무나 외롭고 가족이 그리움이며 약간은 장난기 어린 미소로 얘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셨고 그 외로움과 함께 해 주셨다. 참석한 셀원들은 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영어예배 공동체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은 신앙공동체를 지향하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 영어예배는 매 주일 1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계속 된다. 최사라 기자

오늘 기도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뭇잎의 흔들림으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군 선교 장병진중 세례식



5월 27일(주일) 오후 7시, 28보병사단 신병 교육대 만남의교회에서 진중 세례식이 있었다. 이 세례식에는 150여명의 신병들이 세례를 받았다.

기쁜 소리 찬양단의 '당신을 향한 노래'로 세례식이 시작되었다. 함께 참여한 김창안 안수집사는 군

생활이 힘들더라도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기도했다.

윤은성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가 누구하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도전하며 우리에게 한번 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고,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기를 권면하며 말씀을 전했다.

세례를 받는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엄숙한 순간, 마음의 때를 벗는 의미 있는 예식에 새로 태어남을 느꼈다고 했다.

신형섭 기자

나의/신/앙/이/야/기

제9기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를 마치고...

대체로 모태 신앙생활이 그러하듯 우리 가정은 바쁜 세상일을 중요시하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딸 헤림이와 주변의 중보기도자들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다.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깨어서 큐티하는 삶과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과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마음도 허락하셨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지혜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 이제 넘치는 하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중보기도에 대하여 배워서 중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에 참석했다.

나는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디모데전서2장 1-2절의 말씀처럼 중보기도의 능력과 필요성을 알았고 그 축복의 열매는 아름다운 선함과 평안함을 준다는 확신이 들었다. 세미나 일정 중에 현재 교회 안에서 활동 중인 다섯 팀의 중보기도 사역팀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남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에서 중보기도를 통한 그들의 선한 능력, 곧 영적인 권위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전도사라는 것을 느끼게 했고 순간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었던 나 자신을 발견하며 부끄러웠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좀더 성숙한 곳으로 나를 데리고 오신 것 같아 신선한 전을 같은 것을 느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

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복음 18장 19-20절)의 말씀에서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듯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축복 해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으로 믿는다.

나의 모든 것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대화의 시간!

일주일 중 1시간을 중보기도실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라와 세계를 위해, 교화와 선교를 위해, 긴급히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 아픈 사람을 위해, 교회의 모든 행사와 교역자를 위해, 또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모

든 영광을 돌릴 때 주실 큰 은혜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고 기대가 된다.

‘넘치는 하늘 사랑’ 너무나 감사하여 이웃과 교회와 사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마리아 땅 끝까지의 복음화를 위해 중보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좋겠다.

조정애(1-18)



Thank You Card

캠퍼스에서 온 편지

학생들에게 희망을 뿌리 내리기 위해...

본 교회 장학위원회 (부장: 윤의탁 안수집사)에서는 금년 장학생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 지급은 본교회 장학규정에 의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신청접수를 받아, 장학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발하고 있다. 장학금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한 장학금은 대학생 259명, 고등학생 54명으로 총 1억7천 1백만원이며, 대학생은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은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무지개 축제 기간 중에는 장학금을 수령한 학생들의 감사편지가

본 교회 앞으로 배달되어 편지를 성도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편지를 쓴 학생은 정신여고 학생 18명으로 류미라 상담부장(정신여고 장학담당)이 직접 본교회에 전달하여 편지를 읽어본 장학위원들이 이를 전 교인에 알려야한다는 생각으로 무지개 축제에서 편지내용을 공개했다고 한다. 또 익명의 성도는 편지내용에 감동하여 편지쓴 모든 학생에게 조그만 정성이 담긴 상품권을 선물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본교회 장학사업이 학생들의 희망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내리는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태원 기자

‘주님의 교회’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여고등학교 재학중인 2학년 15반 이문선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주화빛 황사핀 하늘이 개어지고 교내엔 벚꽃이 만발하는 봄이 되었네요. 건조한 날씨에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저를 후원해 주셨던 ‘주님의 교회’ 분들께 깊이깊이 감사드리기 위해 이렇게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방에서 홀로 저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께서 홀로 저와 언니를 보살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 넉넉치못하여 부모님께 교육

비 문제를 말씀드릴 때마다 다 너무도 제 자신이 한스럽고 부모님께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되어 너무도 기쁘고 학업에 대한 의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례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공부하겠습니다. 아직 만족할만한 성적은 아니지만 이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났으니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절 이렇게 도와주신 주님의 교회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빌게요. 안녕히 계세요.

2007 4.11 정신여고 2학년 이문선 올림

※필자의 양해를 받고 이름을 게재했습니다.

(중보기도사역팀 5월 수련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 기도하라”

5월10일(목) 중보기도 사역팀 수련회가 오전 10시 30분 열렸다. "약한자로 강하게"의 찬양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제목으로 정영환 목사의 말씀을 들었다. 지난 4월 중보기도 세미나를 수료하고 새로 사역을 시작하는 9기 사역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였다. 중보기도자 우리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회개하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였다. 맛있는 점심 식사 후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오후 1

시 30분부터 2부 순서로 이진호(WII교수) 목사 특강에 참석했다. 이진호 목사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야함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제공: 송용미 집사(중보기도 사역팀)

(차량안내/음향부)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가 되자고...

5월 20일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난지도에 있는 야외캠핑장에서 현재 차량부와 음향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가족, 그리고 그동안 차량안내부 봉사를 했던 교우들이 함

께 모여 상반기 야유회를 가졌다. 김한종 피택장로의 개회기도와 이호목사의 폐회기도 속에서 맑은 여름 햇살 가운데 평소에 쉽게 모이기 어려웠던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마련해온 음식들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웠다. 비록 적은 수의 봉사자들이 조금은 과중한 교회사역으로 인해 때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서로 웃으며 격려하면서 이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해 하나님이 맡기실 더 큰 일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되자고 결단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마지막 폐회하기 전에는 참석한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 단체 사진을 찍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의 가슴에 남기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량안내부와 음향부는 함께 봉사하고 섬길 사역자를 찾고 있으며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있으니 많은 성도들이 봉사와 섬김의 문을 맘껏 두드려주시기를 기쁘게 기다리고 있다.

(기사제공:봉사사역본부)



●부서별 단기 선교 일정 계획

교역자: 정희성 목사

교역자:윤은성목사(청년부),정요섭목사(중등부, 아동부)

구분	나라 및 지역	내용	인원	일자	Team Leader
장년부	신장	위그루족(중국 소수민족)전도	15	8/11~8/15	변춘석 집사 (010.7722.6780)
	K시	한족(중국)전도	10	7/15~7/20	이희숙 권사 (018.281.5728)
	우즈베키스탄	이슬람권 전도	20	7/31~8/7	손영익 집사 (019.287.9258)
	캄보디아	우물파기 및 문화사역	25	8/10~8/15	장일형 집사 (019.240.6815)

구분	나라 및 지역	내용	인원	일자	Team Leader
청년부	1팀(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지역)	Vision Trip	10	8/5~8/11	
	2팀(태국, 캄보디아/직장인)		10	8/7~8/11	
	3팀(중국공명)		10	8/10~8/17	
	4팀(중국공명/직장인)		10	8/13~8/17	
	5팀(동부유럽)		15	8/6~8/16	
중등부	우즈베키스탄	Vision Trip	25	8/7~8/14	임경순전도사
아동부	캄보디아		20	8/6~8/11	신상욱전도사

※총계10팀150명

제 5회 정립음악회

주님의교회 교우가 함께하는 음악회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4일 (월), 복지사역본부 장애팀에서는 정립회관에서 음악회를 열었다. 작은 만찬과 칸티클 합창단 공연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장애인만을 위한 음악회라기보다는 그들의 가족과 주님의교회 교우가 함께하

는 음악회였다. 합창과 소프라노 독창, 테너 독창, 바이올린 독주 등등, 참여한 사람들은 순서가 끝날 때마다 박수로 답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참석해준 김예량의 바이올린 독주는 세번의 앵콜을 받으며 음악회를 더욱

빛내주었다. 음악회를 마친 정립식구들은 음악을 통해 우리 마음이 은혜롭고 따뜻해짐을 느꼈다고 하며 마치 천국의 음악 소리를 듣는 듯 했다고 전했다. 신형섭 기자

(호스피스부)

강바람 속 마음의 풍요 누리



호스피스부는 2007년 5월 28일 (월)일 남이섬에서 야외예배를 드렸다. 감사 기도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부르며 시작한 야외회는 각기 봉사하는 날과 봉사하는 곳이 틀려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40여명과 이번 5월에 수료한 무지개 호스피스 수료생 4명도 참석했다.

말기 암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봉사자들은 나보

다 남을 더 높이 섬기는 은혜와 가진 것 적고 아는 것 많지 않아도 건강과 섬김을 주심에 감사하며 무엇을 베푸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다. 이 날은 봉사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기획된 것이다. 봉사를 하며 정서적으로 메마를 때 시원한 강바람 속에서 마음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우동운 목사는 말씀을 통해 자연과 같이 호흡도 해보고 자연과 나의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교감하며 자연에 깃든 하나님의 느낌을 가지며 봉사사역에 더 열심히 하기를 기원했다.

예배 후 배숙자 권사의 고전무용공연도 있었고 봉사자들이 재미나게 배우며 같은 공동체임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기사제공: 호스피스부

4여선교회 모임



5월16일 4여선교 새식구환영으로 양평 Dr.박 갤러리로 향했다. 날씨가 꾸물꾸물한데도 불구하고 23명이나 모여 우리는 흥분했다. 새로오신 회원들이 서로의 서먹함을 이야기와 웃음속에서 풀

어나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

우리는 다음주에 있을 평화복지관 반찬봉사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빗속을 뚫고 무사히 교회로 돌아왔다. 4여선교회는, 한사람 한사람이 주인이 되어 만들어가는 작지만 사랑을 나누고 친교하는 공동체이다. 소옥민 기자

※4여선교는 1958년-1962년 여성성도들의 모임이다. 매월 둘째 수요일 10시30분 5층 찬양연습실에서 월례회를 갖고 한달에 2-3차례 평화복지관과 수서복지관에서 반찬봉사를 하고있다.

문의:심미숙집사(011-784-7604)

알려드립니다

3부 살롬 찬양대, 성금요일 음악회 실황 CD로 제작

3부 살롬 찬양대에서 지난 4월 6일 성금요일 음악회 실황을 CD로 제작했습니다. 질 좋은 음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정성을 들여 만들어진 CD를 원가 3천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 작: 살롬 성가대 / 구입처: 테이프 판매대
문 의: 강정구 집사(016-779-2661)

무지개축제 사진전 열려

무지개 축제 사진전이 본교회 1층 좌우복도에서 열렸다. 개인별 사진은 교회 홈페이지 (www.pcltv.org) "무지개축제 온라인전시회"를 클릭한후 다운받으면 된다



Misson 함줄함줄,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이르다’와 ‘빠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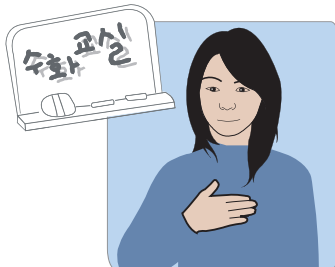
요즘 날씨가 참 맑고 화창합니다. 그래도 반소매만 입기는 좀 “이르죠? 빠르죠?” 어떻게 말해야 옳은 표현일까요?

‘빠르다’와 ‘이르다’의 차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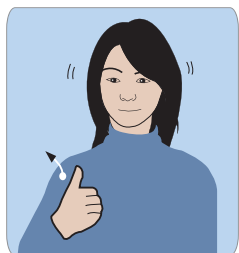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르다’는 “어떤 동작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라는 뜻으로 속도(速度)와 관계가 있습니다. ‘두뇌 회전이 빠르다, 약효가 빠르다, 걸음이 빠르다, 말이 빠르다, 발놀림이 빠르다’처럼 씁니다.

‘이르다’는 “계획한 때보다 앞서 있다”는 뜻으로 시기(時期)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올해는 첫눈이 이른 감이 있다, 그는 여느 때보다 이르게 학교에 도착했다. 공연이 시작되기에는 시간이 일러서인지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처럼 씁니다. 뉴스를 듣다 보면, 가끔 경제회복 빨라야 내년 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경제회복 일러야 내년 초라고 해야 옳습니다. 이정애 기자



알다 [know]란 뜻이에요
오른손을 펴 가슴에 대고 한두번 상하로 움직이면 알다란 뜻입니다



모르다 [don't know]란 뜻이에요
오른손 끝으로 어깨를 한두번 스쳐 올리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 모르다란 뜻입니다

새가족 모임

“5주간의 새가족 모임을 마치고”



저희 가족 세 명을 포함하여 예비부부와 두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7명이 5주(3월11일-4월8일) 동안 알찬 알곡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 가족 모임 교육을 받았습니다.

새 가족 교육을 통해 성경은 머리의 지식이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한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 5주 내내 주일이 기다려지는 즐겁고 유익한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왜 중요한

까?란 질문으로 시작된 시간들은 모임이 거듭 될수록 처음 나온 새 신자들은 물론 이미 하나님을 영접했던 성도들까지 주님을 바로 알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주님의 교회를 번식하는 교회, 성도 개인의 은사 중심의 사역을 활용하는 교회 등 주님의 교회에 대한 소개로 매듭지어 다소 생소했던 주님의 교회에 친근하고 포근하고 편안한 마음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담당하신 동현수 안수집사님 댁에 초대되어 대접받았던 특별한 오찬은 어떤 식사보다 맛있었고 기억에 오래 남을 만큼 사랑이 넘치는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며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해주신 이미영 집사님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새 가족 모임을 마치고 이제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몸된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이우풍(1-13)